나는 걷는다 고로 철학한다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

프레데리크 그로 지음
책세상·1만4000원

"느리게 가는 데 걷는 것만큼 좋은 건 일찍이 없었다. 걷기 위해서는 두 다리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건 일체 필요 없다. 더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럼 걷지 말고 다른 걸 하라. 구르든지, 미끄러지든지, 날아라. 걷지 마라.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오직 하늘의 강렬함, 풍경의 찬란함뿐이다. 걷는 것은 스포츠가 아니다."

〈본문 중에서〉

'걷는 것은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당연한 얘기다. 걷는데 순위를 정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에 반해 스포츠는 기술을 연마하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쟁과 마찬가지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며 명예와 불명예가 따른다. 엄청난 훈련과 인내와 노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걷기는 자유다.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런 저런 걱정거리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프랑스 철학자 프레데리크 그로는 걷기 예찬론자다. 그는 걷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길을 걸어왔는지, 어느 산책길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지를 얘기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먼 길을 걷다 보면 일의 속박과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프레데리크 그로가 펴낸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은 걷기를 철학적 행위이자 정신적 경험으로 규정한다. 자연과 하나 되는 데서 오는 일치감과 충만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느리게 걷고
자유롭게 사유하며
깊이있게 살자

사실 걷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시간과 장소만 있으면 걸을 수 있다.

책은 걷기와 사색을 토대로 독창적인 사상과 작품 세계를 형성했던 철학자와 작가들의 이야기도 담고 있다. 통찰력과 감수성, 영감이 걷기라는 행위를 통해 배양되었다는 의미다.

마르세유와 아프리카 사막 등지를 쉴 새 없이 오갔던 시인 랭보는 '바람구두를 신은 인간'으로 불렸고,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산책에 나섰던 칸트는 '철학자의 길'을 걸은 지성인으로 알려졌다.

이들뿐 아니라 니체는 걷고 또 걸으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영원회귀'의 착상을 떠올렸다. 시인 제라르 드 네르발은 걷기를 통해 '불의 딸들' '산책과 추억' 같은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

걸어야만 진정으로 생각하고 구상할 수 있다고 믿었던 루소도 산책을 의미 있는 행위로 상정했다.

"나만의 도보 여행에서만큼 많이 생각하고 많이 존재하고 많이 체험한 적은 결코 없었다. 감히 말하건대, 이 여행에서만큼 나 자신이었던 적은 결코 없었다."

이처럼 걷기를 통해 체현된 영감은 철학적 사유와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그 밖에 걷기는 일상적 걷기, 순례자의 걷기, 정치적인 걷기와 같은 사례로 확장된다. 걷는다는 것이 다종다양한 행위를 아우르기 때문이다.

집이나 학교, 회사 등 단순히 어느 '안'에서 다른 '안'으로 이동하기 위한 걷기는 가장 일상적이다. 신앙심을 돈독히 하기 위해 예루살렘 등지를 향해 떠나는 순례자의 걷기는 그 목적이 숭고하다.

인도의 민족지도자 간디의 비폭력평화주의는 '저항'과 '평화'를 구현한 걷기로 유명하다. 말년에 간디는 종교 갈등으로 분열된 조국의 구석구석을 걸으며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걷기는 몸과 마음에 여러 감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몸과 마음이 활발히 대화하도록 격려해주며 조화를 이루게 해준다. 어쩌면 자신과의 가장 정직한 대화가 걷기인지 모른다.

'나는 걷는다. 고로 존재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개혁가' 싯다르타, 맨발의 악전고투 출가記

사람의 맨발

한승원 지음
불광출판사·1만3800원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석가모니 붓다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 나왔다.

우리나라 구도소설의 대표작 '아제아제 바라아제'(1985)의 작가 한승원(75)이 '사람의 맨발'을 펴냈다.

그동안 작가는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전봉준, 임방울 등 우리 민족의 한과 혼을 지닌 인물들의 삶을 웅숭깊은 필력으로 형상화했다. 이번에 펴낸 '사람의 맨발'은 비록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성인이라는 점에서 기존 소설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 '사람의 맨발'이 상징하듯 작가 시선은 인간 붓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 석가모니 관련 소설이 대부분 출가 이후를 다루고 있는 점과 달리, 작품은 출가 이전의 삶에 포커스를 두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때문일까. 소설은 시종일관 주인공 이름을 '싯다르타'로만 사용한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붓다가 출가하기 이전의 속세 이름이다.

소설은 신화나 전설로 내려온 기존의 이야기를 과감히 탈피한다. 원래 붓다 이야기는 왕자의 신분으로 성문 밖을 거닐다 많은 이들의 고통을 보고 출가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작가는 싯다르타를 현실에 바탕을 둔 혁신적인 인물로 그려낸다. 불가촉천민의 마을을 잘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개혁가의 이미지로 상정한다. 어느 사회든 뿌리 깊게 박힌 신분의 강고함은 쉽게 깨지지 않는 법이다. 결국 싯다르타는 탐욕스러운 장인에 의해 좌절을 당하고 출가를 결심하기에 이른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된다.

소설은 신화나 전설로 내려온 이야기를 작가 특유의 상상력으로 새롭게 재해석해낸다. 작가 나름의 허구가 3분의 2 이상 들어 있는 이유다. 독자들이 전기가 아닌 문학작품으로 읽어야 하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소설의 제목이 상징하는 바는 간단하다. 싯다르타는 왕자 시절에는 물소 가죽신을 신었지만 출가 이후에는 맨발로 걸어 다녔다. '맨발'은 출가 정신의 구현, 어쩌면 작가의 내면에 드리워진 '염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어지는 작가의 말은 그의 글쓰기의 지향을 엿보게 한다.

"나는 싯다르타와 강진에 유배왔던 정약용을 스승으로 삼았다. 그 분들의 절대고독을 실천하고 싶었다. 그것이 오래전에 서울을 버리고 이곳 장흥 '해산토굴'에 내려와 글을쓰는 이유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진보인사 26명의 삶… "뜻밖에, 행복하더라"

김규항의 좌판

김규항 지음
알마·1만7500원

2002년 칼럼집 'B급 좌파'를 시작으로 15년 넘게 좌파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명료한 산문세계를 펼쳐왔던 김규항이 이번에는 인터뷰어로 돌아왔다. 2년여 동안 전국 곳곳의 진보인사 스물여섯 명을 만나 진솔하게 대화한 기록을 담은 '김규항의 좌판'을 들고서다.

희망버스 시인 송경동부터 시작된 만남의 여정은 다큐멘터리 감독 김일란·홍지유, 놀이운동가 편해문, 인디씬의 전위밴드 '로다운 30'의 기타리스트 윤병주 등 다양한 결의 대화로 이어진다.

또 강정마을 지킴이 문정현 신부, 쌍용차 해고노동자 이창근씨 등 첨예하고 격렬한 저항의 자리는 물론 기찻길 옆 작은 학교 김중미씨, 학습공동체 '새움'의 한형식씨 등 신선하고 은근한 활동가들까지 조명한다.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며 불가능의 가능성을 여는 행복한 그들의 이야기. 저자는 처음으로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듣는 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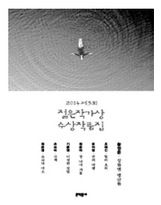
저자가 만나 본 이들의 공통점은 뜻밖에도 "행복하다" 였다. 투쟁 현장에서 싸우는 활동가들이나 '인디'의 길을 걷는 예술인들은 혹독한 삶을 살 것이라는 많은 이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랐다. 저자는 책을 통해 그런 생각들이 오해였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 "좌파는 경쟁과 승리라는 감각적 즐거움을 좇아 불안의 아수라를 피하려는 사람들 곁에 피어난,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좇는 에피큐리언(epicurean) 이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황정은 '상류엔 맹금류' 등 촉망받는 젊은 작가 작품

2014 제5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황정은 외 지음
문학동네·5500원

제5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이 출간되었다. 문학동네가 2010년부터 신설, 운영해온 젊은작가상은 그동안 독자들과 작가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아왔다.

올해 수상자는 황정은·조해진·윤이형·최은미·기준영·손보미·최은영씨로,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표적 작가들이다.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상류엔 맹금류'의 작가 황정은은 한국일보문학상(2010), 현대문학상(2013, 차후 수상 반려) 등을 수상한 작가로 한국문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소설가다. 지난해 한국일보문학상을 수상한 손보미 역시 촉망받는 작가로 꼽힌다. 이밖에 '빛의 호위' 조해진 작가, '쿤의 여행' 윤이형 작가, '창너머 겨울' 최은미 작가, '이상한 정열' 기준영 작가, '쇼크의 미소' 최은영 작가의 소설은 우리 시대 젊은 문인들의 열정과 재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

'우경화' 1920~1930년대 일본의 원래 모습 어땠을까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

미리엄 실버버그 지음
현실문화·3만원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원래 모습은 어떠했을까? 1920~1930년대 일본의 대중문화에 숨겨진 욕망과 갈등의 실상을 밝혀낸 책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역사학 교수였던 미리엄 실버버그는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에서 근대 일본의 대중문화를 조명한다.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라는 세 단어에서 유래한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는 낯설고 독특한 활기를 띠고 움직이는 일본 대중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저자는 일본의 근대가 동시대 서구의 근대와 어떻게 동시적이면서도 다른지를 비교분석한다. 전운이 감도는 제국의 정세 속에서 당대의 대중문화가 얼마나 정치적이었고 제국의 이데올로기와 관습 사이에 괴리가 있었는지를 밝혀낸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14 - 90호

전남테크노파크 부서장 모집 공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 전라남도 출연기관으로서,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시켜 전남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참신하고 유능한 부서장을 초빙하고자 합니다.

1. 임용 분야

가. 임용인원 : 2명
나. 임용분야 : 부서장(정책기획단장,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장)
다. 임용형태 : 3년 계약직, 연봉제(기본연봉 6,500~ 9,000만원)
라. 임용분야 주요업무
1) 정책기획단장
- 지역산업중장기 발전전략수립
- 지자체 중 · 대형 사업 기획지원
- 정책기획단 운영 총괄

2)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장
- 전라남도 신소재(경량금속)산업 육성
-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총괄

2. 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법인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정의 취소)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3. 제14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공무원이 아닌 자(단, 국 · 공립 대학교 교수는 제외)
1)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3)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4)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동법 제14조에서 정한 대학교 교수, 부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5) 기타 위 각호의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부서장추천위원회에서 인정받는 자

3. 전형방법 및 절차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1)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2014.05.21.(수) 예정
나. 2차 전형 : 면접전형
1)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 등
2) 일시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최종 임용자 발표 :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재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재)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jntp.or.kr)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4. 4. 30(수) ~ 5. 16(금) 18:00까지(17일간)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재)전남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061-729-2632, 강병현) (540-856)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4로 13 (선월리 908)

5.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 응시원서 1부	• 재단 소정양식(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 1부	• 재단 소정양식(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자기소개서 1부	• 재단 소정양식(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원본제출 • 외국대학 졸업자는 졸업국증명원 제출 • 외국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록필증 사본 첨부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납입내역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원본제출(기재된 모든 경력)
• 직무목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재단 소정양식(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면접당일 요약본(A4 5매이내) 7부를 제출하고 프레젠테이션(PPT) 10분이내 발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 필수)	• 최근 3개월 이내 원본 제출
• 연구실적 목록 및 증빙자료	• 사본제출 / 해당자에 한함
• 자격 · 면허증	• 사본제출 / 해당자에 한함
• 기본증명서(면접전형시 제출)	• 원본제출 • 읍면동사무소 발급
• 범죄경력 ·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면접전형시 제출)	• 원본제출 • 경찰서 민원실 발급

※ 소정양식은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ntp.or.kr) 본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활용

6.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 임용후보 대상자로 결정된 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전남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061-729-2632, 강병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